

뉴질랜드 농업 현황 및 시사점 *

이혜은·윤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연구원)

1. 농업연망

1.1.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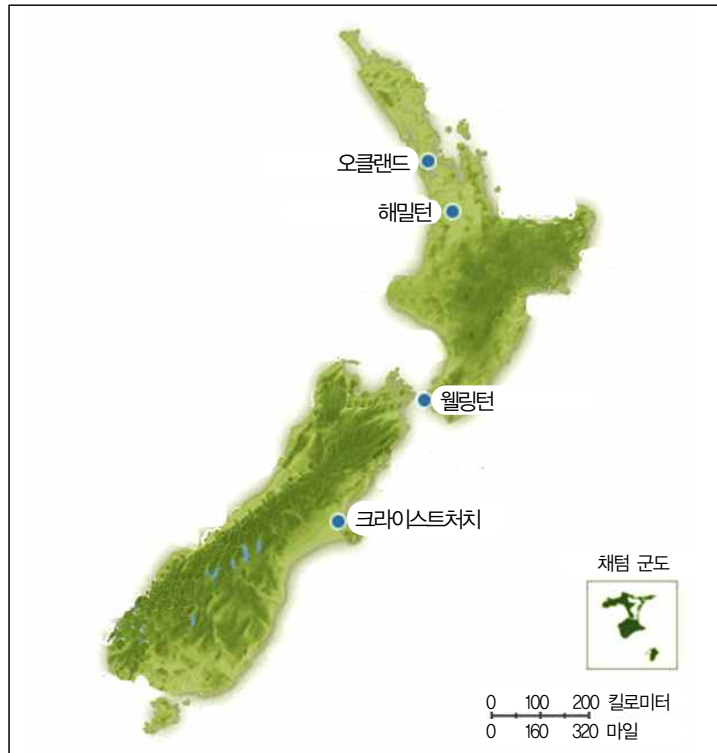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인구는 424만 2,048명(2013년 기준)이며, 2006년 조사와 비교하여 5.3% 증가하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북섬의 오클랜드(Auckland)이다. 오클랜드의 2013년 인구는 141만 5,550명으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하여 8.5% 증가로 주요도시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북섬에 있는,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의 인구는 19만 956명이다(2013년 기준). 오클랜드의 뒤를 이어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인구는 34만 1,469명(2013년 기준)으로, 최대도시 오클랜드와는 1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국토면적은 약 27만km²이다. 약 63%에 해당하는 약 17만km²가 농경지이며, 초지나 저목지(低木地) 등으로 방목에 이용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위치하여 2011년 2월 22일에는 남섬 캔터베리 지방의 크라이스트처치 근교를 진원지로 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형적으로는 북섬과 남섬으로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나누어지며, 전체적으로는 평지, 언덕, 고산이 있는 복합적인 지형이다. 북섬은 비교적 평탄하지만, 남섬은 평야지대도 있지만 산악지대와 하천이 많다. 서안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연간 평균기온은 북섬이 약 15℃, 남섬이 약 10℃이다. 강수량은 많은 지역에

그림 1 뉴질랜드 지도



자료: (<http://goo.gl/pTzCPZ>).

표 1 주요 도시별 인구(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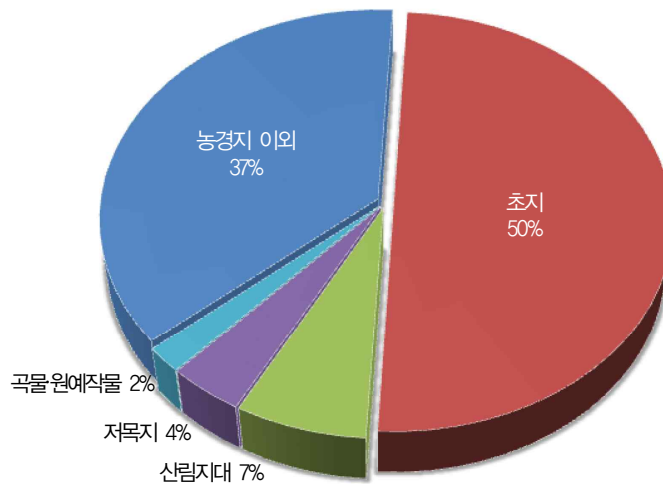
도시명		인구(명)	구성비
1	오클랜드 북섬	1,415,550	33.4%
2	크라이스트처치 남섬	341,469	8.0%
3	웰링턴 북섬	190,956	4.5%
4	해밀턴 북섬	141,615	3.3%
5	듀넨 남섬	120,246	2.8%
총인구		4,242,048	100.0%

주: 표 내용 중 웰링턴의 인구는 웰링턴시의 인구로 주변의 Lower Hutt City, Upper Hutt City, Porirua City 등의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주변 자치체도 포함한 웰링턴광역자치체(Wellington Region)의 인구는 47만 1,309명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2013 Census.

서 연간 600~1,600mm로 적지 않지만, 건조지역도 있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2013년에는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같은 해 3월에는 북섬 전체가 가뭄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가뭄으로 목초 생육 상황이 악화되어 낙농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림 2 국토의 용도별 면적(2008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2,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2012.

1.2. 농림수산업 생산

산업별 내역이 발표되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은 104억 5,200만 NZ달러로 5.2%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전문업·과학·기술이 7.0%, 임대·부동산이 6.7%, 보건·사회보조 6.2%로 뒤를 잇고 있다. 도매업 5.2%, 건설 5.2%, 금융·보험은 5.1%로 거의 같은 규모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의 56%을 차지하는 낙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임업은 14억 5,200만 NZ달러 0.7%, 수산업(양식업 포함)·농림수산 서비스는 13억 2,100만 NZ달러 0.7%로 낙농과 비교하여 규모는 상당히 작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에서도 특히 낙농업이 현저하게 성장하였으며(178.8% 증가), GDP 성장률(23.2% 증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낙농업의 확대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에서 농가구분별 농가호수를 살펴보면, 포도나 키위 등 원예작물과 양, 육우, 낙농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주요 산업의 국내생산액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증감률	구성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	94.3%	5.2%	5,378	6,203	8,942	7,102	8,653	10,452
원예·과일재배	20.0%	0.6%	916	1,091	1,085	1,097	1,084	1,099
가축·사료농업	50.9%	1.6%	2,122	2,086	1,875	2,460	2,683	3,202
낙농	178.8%	2.9%	2,103	2,757	5,701	3,271	4,590	5,863
기타	21.1%	0.1%	237	269	282	274	296	287
임업	80.1%	0.7%	806	1,001	900	896	1,127	1,452
수산업·농림 수산서비스	9.2%	0.7%	1,210	1,386	1,454	1,359	1,282	1,321
전문가·과학·기술	28.0%	7.0%	10,877	11,688	12,740	13,265	13,054	13,919
임대·부동산	27.4%	6.7%	10,453	11,084	11,189	11,370	12,277	13,322
보건·사회보조	41.5%	6.2%	8,737	9,371	10,302	11,242	11,927	12,359
도매업	23.5%	5.2%	8,365	8,583	9,318	8,864	9,406	10,327
건설	17.9%	5.2%	8,732	9,646	10,693	10,397	10,771	10,295
금융·보험	36.8%	5.1%	7,490	7,760	8,201	9,277	11,020	10,244
기타	-	-	99,566	103,220	110,353	111,836	110,912	115,417
국내총생산	232.2%	100.0%	161,614	169,942	184,092	185,608	190,429	199,108

주: 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1, National Accounts: Year ended March 2011-GDP breakdown tables.

1.2.1. 원예작물

(1) 키위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재배 품종은 1998년에 시험 판매된 품종 ‘제스프리 그린(Zespri Green)’이다. 뉴질랜드 국내뿐

표 3 키위의 생산 및 판매 상황

구분	2001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호수(호)	2,506	2,748	2,710	2,711	2,706	2,662	2,636
경작면적(ha)	10,159	11,646	12,337	12,525	12,825	12,502	12,263
단수(tray/ha)	6,445	7,655	8,866	8,546	8,255	9,556	8,621
출하량(백만 달러)	65.5	87.8	109.4	107.0	105.9	119.5	105.7
판매량(백만 달러)	61.5	82.3	99.9	96.5	98.1	109.1	101.3

주: 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1트레이는 중량 3.6kg의 분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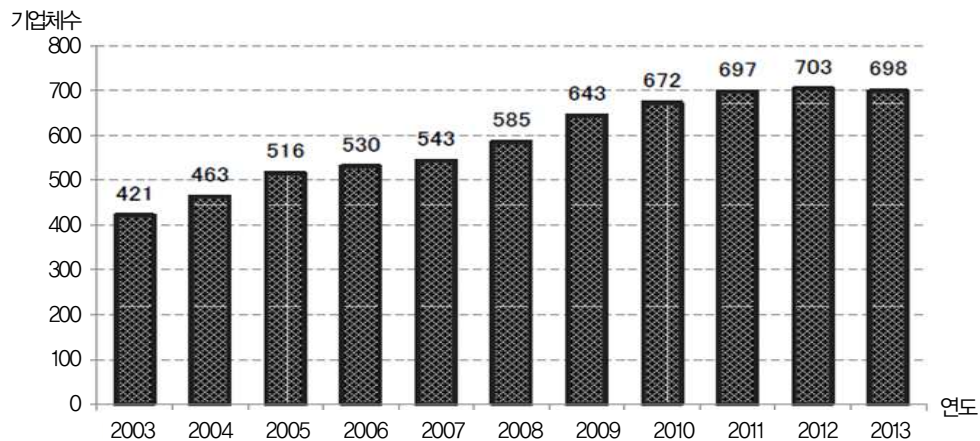
자료: The New Zealand Institute for Plant & Food Research Limited, 2013, Fresh Facts New Zealand Horticulture.

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EU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한 결과, 현재 뉴질랜드의 주요 농산물로 인지되고 있다. 생산 및 판매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개척 및 수출 확대에 따라 2009년경까지 출하량 증가가 계속되었지만, 그 후에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 포도

2000년경부터 와인 수출이 급증하였다. 수출액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키위와 사과(가공품 포함)의 뒤를 잇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두 품목을 상회하였고 원예작물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와인 수출 확대와 함께 와인 생산을 직접 하는 기업체 수와 와인용 포도의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와인 기업체수는 2011년에 약 700개사에 도달하였고, 포도 생산량은 2003년에는 약 7만 5,000톤, 10년 후인 2013년에는 4배 이상인 약 33만 6,000톤까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북섬 북단의 말보로지역 (Marlborough Region)이 포도 생산량의 73%(2013년)를 차지하는 산지가 되었다.

그림 3 와인 생산 기업체수



주: 기업수로 와인용 포도밭 수와는 상이함.

자료: New Zealand Winegrowers, 2013, Annual Report 2013.

재배 품종은 화이트 와인용 포도의 일종인 ‘쇼비농 블랑(Sauvignon Blanc)’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의 확대도 현저한 편이다.

표 4 주요 포도 품종별 생산 현황

품 종	재배면적(ha)				생산량(톤)				
	2003	2008	2013	증감률 2003→2013	2003	2008	2013	증감률 2003→2013	
백 포 도	쇼비농블랑	4,516	13,988	20,429	352.4%	28,266	169,613	228,781	709.4%
	사르도네	3,515	3,881	3,253	▼7.5%	15,534	33,346	27,184	75.0%
	피노그리	316	1,383	2,477	683.9%	836	12,417	22,042	2536.6%
	리즐링	653	917	796	21.9%	3,376	8,547	5,932	75.7%
	게비츠트라미네르	197	316	334	69.5%	529	2,101	1,788	238.0%
적 포 도	피노누아	2,624	4,650	5,425	106.7%	9,402	32,878	31,775	238.0%
	메틀로	1,249	1,363	1,262	1.0%	4,957	10,166	10,076	103.3%
	시라	134	278	419	212.7%	330	1,452	2,240	578.8%
	까베르네쇼비농	741	516	331	▼55.3%	3,201	2,270	1,465	▼54.2%
기타(품종불명포함)	1,855	2,018	1,007	▼45.7%	8,390	9,562	5,054	▼39.8%	
합계	15,800	29,310	35,733	126.2%	74,821	282,352	336,337	349.5%	

주: 숫자는 New Zealand Winegrowers에 의한 Vintage Survey 회답 기준.
 자료: New Zealand Winegrowers, 2013, Annual Report 2013.

1.2.2. 축산물

육류(양, 소 등)는 뉴질랜드에서 유제품 다음으로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가축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양의 품종은 약 50%가 롬니종(Romney)이며, 식육과 양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

표 5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

단위: 천두

구 분	2002	2007	2012	증감률 2002→2012
양	39,572	38,460	31,263	▼21.0%
육우	4,491	4,394	3,734	▼16.9%
시슴	1,648	1,396	1,061	▼35.6%
돼지	342	367	314	▼8.3%
산양	153	112	90	▼41.1%
말	76	66	57	▼25.0%
젖소(참고)	5,162	5,261	6,446	24.9%

주: 각 연도 6월 30일 시점 숫자는 모두 농가구분에 의한 사육두수의 합계치. 예를 들면, 농가구분상 양의 사육농가이어도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 등도 있음.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Agricultural Census tables 2013.

에는 양모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양모의 국제가격 하락에 의해, 현재는 주로 식육으로 수출되고 있다. 양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다.

최대의 사육두수인 양을 시작으로 육우 등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는 과거 10년 간 대폭 감소한 한편, 젖소는 약 25%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생유의 국제가격이 최고치로 전환된 결과, 높은 생산자 유가(낙농가에 대한 지불 단가)가 유인되어 사육하고 있는 젖소두수의 확대와 일부 축산농가의 낙농으로의 업종전환, 낙농으로의 신규참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2.3. 낙농제품

유제품은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목이며, 그 원재료인 생유를 생산하는 낙농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기점을 이루고 있다. 낙농가수는 2009년까지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농장면적 및 사육두수는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전체의 생유 및 유고형분 생산량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표 6 뉴질랜드 낙농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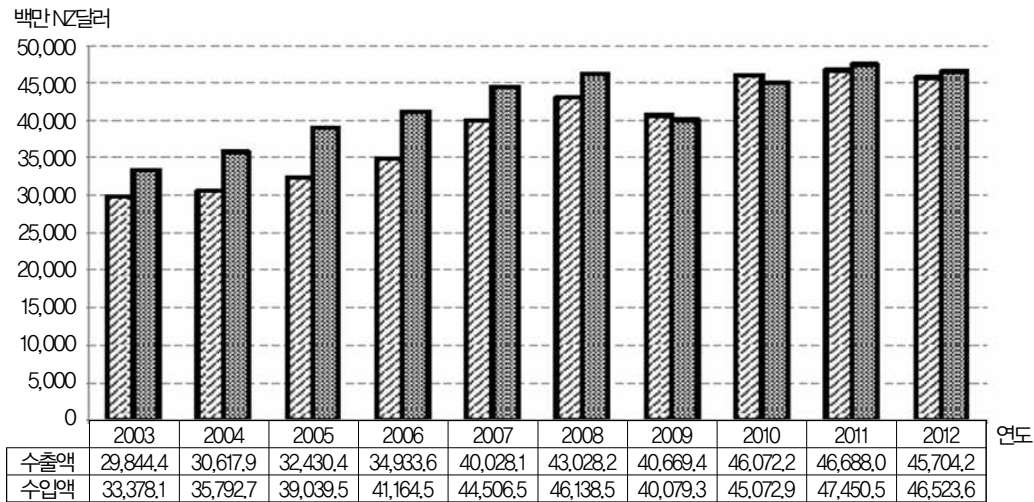
구 분	낙농가수 (호)	농장면적 (ha)	1호당 농장면적(ha)	젖소 사육두수 (백만 두)	생유생산량 (억 리터)	유고형분생산량 (만 톤)
1995	14,736	1,208,352	82.0	2.94	93.3	78.8
2000	13,892	1,329,173	95.7	3.49	129.3	109.6
2005	11,883	1,398,966	117.7	3.83	147.0	126.7
2009	11,691	1,563,495	133.7	4.40	164.8	143.8
2010	11,735	1,637,706	139.6	4.53	173.4	151.3
2011	11,798	1,638,546	138.9	4.63	191.3	168.5

주: 유고형분은 유지방분+유단백분 연도는 6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LIC, Dairy NZ, 2012, *New Zealand Dairy Statistics 2011-2012*

1.3. 농림수산업 무역

농림수산업의 수출입총액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주춤했지만, 2012년에는 수출 및 수입 모두 460억 NZ달러 전후로 상승세로 변화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서는 유제품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육류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이나 어패류의 수출 등을 합하여 농산품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이다.

그림 4 수출액 및 수입액 변화



주: 연도는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이하 특별 기사가 없는 한 같음. 수출액은 FOB가격, 수입액은 CIF가격. 이하 특별 기사가 없는 한 같음.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2, Global New Zealand 2012.

표 7 품목별 수출입 (2012년,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NZ달러

	수출(FOB)			수입(CIF)		
	수입	금액	구성비	수입	금액	구성비
1	유제품	11,476	25.1%	광물성연료 · 광물유	7,992	17.2%
2	육류	5,249	11.5%	원자로 · 보일러, 기계류	5,707	12.3%
3	목재	3,374	7.4%	운송용기기	5,355	11.5%
4	광물성연료 · 광물유	2,004	4.4%	전기 · 전자기기	3,842	8.3%
5	특별품(정부관계)	1,628	3.6%	플라스틱	1,773	3.8%
6	과일 · 견과류	1,553	3.4%	광학측정 · 의료기기	1,401	3.0%
7	원자로 · 보일러, 기계류	1,545	3.4%	의료품	1,120	2.4%
8	음료	1,457	3.2%	종이 · 판지 · 펄프	915	2.0%
9	어류 · 갑각류	1,345	2.9%	철강 · 동제품	794	1.7%
10	단백물질 · 전분류	1,207	2.6%	가구	715	1.5%
	전체	45,704	100.0%	전체	46,524	100.0%

주: 수출입품목 기사는 재무부 '수출통계품목표(2014년판)' 을 기초로 함.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웃한 호주로의 수출액은 매년 약 100억 NZ달러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현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2008/7~2009/6)에는 약 34억 NZ달러이었는데 2012년(2012/7~2013/6)에는 약 2.3배인 약 77억 NZ달러까지 증가하여 제2의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5위의 수출상대국으로 과거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표 8 참조>.

표 8 수출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08-2012
1 호주	9,717	9,651	10,314	10,460	9,531	20.9%	▼1.9%
2 중국	3,359	4,109	5,635	6,106	7,715	16.9%	129.7%
3 미국	4,808	3,556	3,931	4,083	4,116	9.0%	▼14.4%
4 일본	3,373	3,070	3,371	3,387	2,945	6.4%	▼12.7%
5 한국	1,282	1,322	1,597	1,556	1,585	3.5%	23.7%
6 영국	1,757	1,567	1,515	1,443	1,388	3.0%	▼21.0%
7 싱가포르	791	1,143	760	846	888	1.9%	12.3%
8 대만	769	814	894	803	865	1.9%	12.6%
9 인도네시아	1,065	897	862	857	837	1.8%	▼21.4%
10 말레이시아	796	751	829	907	836	1.8%	5.0%
11 홍콩	823	826	788	882	817	1.8%	▼0.7%
12 인도	727	726	885	906	724	1.6%	▼0.3%
13 독일	860	668	742	716	716	1.6%	▼16.8%
14 필리핀	671	661	722	726	672	1.5%	0.1%
15 태국	573	532	733	684	633	1.4%	10.5%
16 사우디아라비아	582	513	699	640	627	1.4%	7.6%
17 네덜란드	524	467	564	588	605	1.3%	15.3%
18 아랍에미리트연합	391	401	490	631	569	1.2%	45.5%
19 캐나다	515	479	540	586	548	1.2%	6.2%
20 베트남	301	375	445	423	451	1.0%	49.8%
세계 합계	43,028	40,669	46,072	46,688	45,704	100.0%	6.2%

주: 2012년 상위 20개국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2, Global New Zealand 2012.

수출액 상위 5개국 즉, 호주,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액 합계는 수출총액의 약 54%로 수출액 상위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식료품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분유, 미국에서는 쇠고기(냉동), 일본에서는 치즈나 과일의 비율이 높고, 한국에서는 치즈와 쇠고기 비율이 높다.

표 9 수출 국가별 수출액 상위 5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2012년)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호주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수출총액	9,531		7,715		4,116		2,945		1,585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상위 5개 품목	1	원유	17.1%	분유	30.5%	쇠고기(냉동)	22.4%	알루미늄	비공표(주)	17.8%
	2	금	6.0%	목재	16.9%	카제인	7.5%	치즈	목재	17.7%
	3	와인	3.9%	양고기	7.2%	유장 유상분	7.0%	과일	치즈	8.4%
	4	식료품	2.3%	양모	4.8%	와인	6.9%	삼유판	쇠고기(냉동)	7.1%
	5	치즈	2.2%	갑각류	3.1%	양고기	5.2%	쇠고기(냉동)	알루미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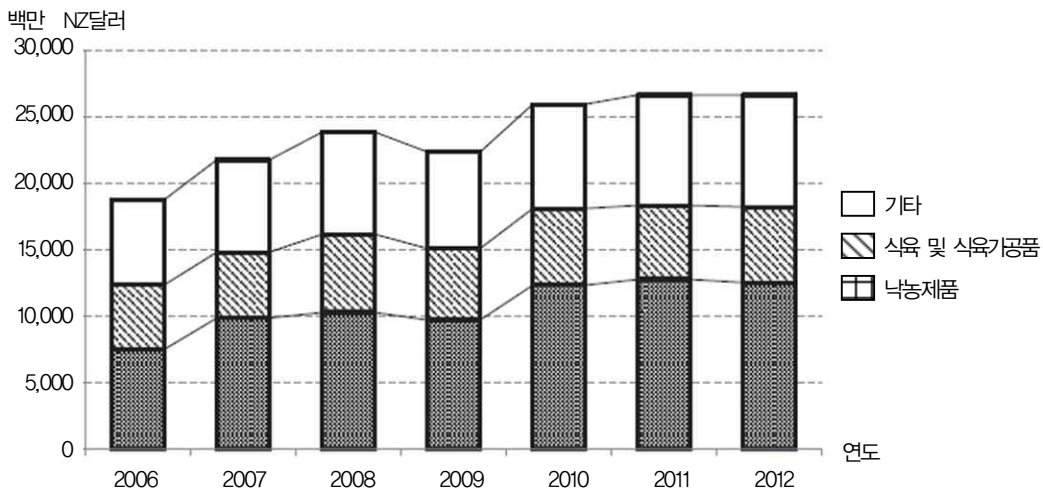
주: 'Confidential items' 으로 분류된 품목. 2012년에는 28,247만 NZ달러로 17.8%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 37만 NZ달러(수출총액의 0.1% 미만), 2011년에는 93만 NZ달러(수출총액의 0.1% 미만)이었음.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농산물 수출액은 유제품에 견인되어 증가해 왔지만, 리먼 사태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2009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다소 회복하였지만 2011년, 2012년에는 거의 답보상태였다.

2012년에는 유제품이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47%을 차지하였고, 식육 및 식육가공품은 21%, 과일 및 채소는 8%이었다. 이 세 품목이 수출총액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전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였던 양모의 수출액은 해마다 감소하여, 2012년에는 수출총액의 2%에 머물렀다.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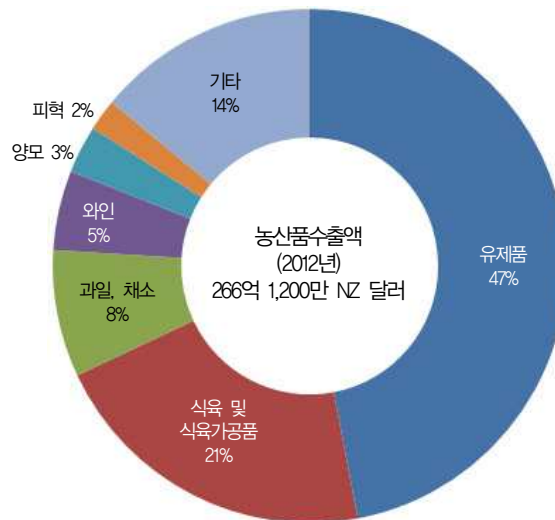
그림 5 농산물 수출액 변화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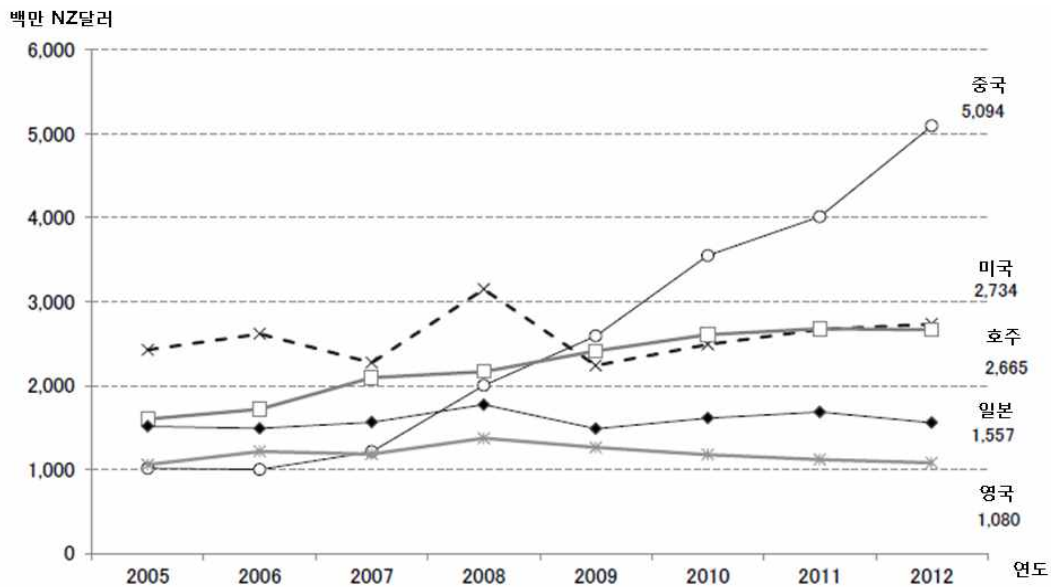
(2012년 농산물 수출액 상위 5개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2008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9년에 미국이나 호주를 제치고 제1의 수출국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4개국으로의 수출액은 거의 답보상태이다.

그림 6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비율(2012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그림 7 농산물 수출 국가별 수출액 변화 (상위 5개국)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1.3.1. 원예작물

채소와 과일은 모두 호주와 일본이 수출국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수출 확대가 현저한 와인은 호주, 미국, 영국 등 3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채소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호주	119	122	107	26.5%	▼ 9.9%
2 일본	120	124	103	25.4%	▼ 13.9%
3 피지	21	20	21	5.3%	0.2%
4 말레이시아	9	7	17	4.1%	81.2%
5 네덜란드	27	11	17	4.1%	▼ 37.6%
6 한국	13	18	16	3.9%	18.4%
7 영국	20	7	13	3.1%	▼ 37.0%
8 미국	9	13	11	2.7%	25.6%
9 인도네시아	12	4	7	1.8%	▼ 39.9%
10 독일	13	6	7	1.7%	▼ 43.8%
상위 10개국 합계	362	331	318	78.6%	▼ 12.1%
세계 합계	449	407	405	100.0%	▼ 9.8%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7류 채소(예, 감자, 토마토, 양파, 쪽파, 마늘,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류, 냉동채소, 건조채소 등).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1 과일·견과류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일본	298	349	279	17.9%	▼ 6.6%
2 EU	252	248	227	14.6%	▼ 9.6%
3 중국	86	98	131	8.4%	52.2%
4 호주	116	165	109	7.0%	▼ 6.2%
5 대만	106	98	105	6.7%	▼ 1.5%
6 미국	80	80	97	6.2%	20.1%
7 스페인	96	71	79	5.1%	▼ 16.9%
8 영국	48	50	57	3.7%	18.5%
9 태국	32	36	55	3.5%	72.9%
10 네덜란드	54	35	52	3.4%	▼ 3.6%
상위 10개국 합계	1,169	1,229	1,191	76.7%	1.9%
세계 합계	1,490	1,589	1,553	100.0%	4.2%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8류 과일 및 견과류(예,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견과류,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피인애플, 구아바, 망고, 감귤류, 포도, 멜론, 사과, 배, 살구, 버찌, 복숭아 냉동과실, 냉동견과류, 건조과실 등).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2 키위 · 기타 과일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일본	288	326	262	27.0%	▼ 8.8%
2 EU	209	215	187	19.3%	▼ 10.3%
3 중국	84	94	107	11.1%	27.9%
4 대만	67	71	82	8.5%	22.7%
5 스페인	92	70	75	7.7%	▼ 18.9%
6 호주	55	65	67	6.9%	22.5%
7 한국	62	78	43	4.4%	▼ 30.2%
8 홍콩	24	30	30	3.1%	26.9%
9 이탈리아	28	31	24	2.4%	▼ 15.3%
10 미국	29	28	23	2.4%	▼ 19.8%
상위 10개국 합계	937	1,008	901	92.8%	▼ 3.8%
세계 합계	995	1,076	972	100.0%	▼ 2.4%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8010.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3 와인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호주	338	382	373	30.8%	10.4%
2 미국	232	251	283	23.4%	22.2%
3 영국	294	284	278	23.0%	▼ 5.3%
4 캐나다	59	71	78	6.5%	32.0%
5 중국	17	25	27	2.2%	59.3%
6 네덜란드	27	27	27	2.2%	▼ 2.5%
7 홍콩	18	18	20	1.7%	16.2%
8 싱가포르	14	15	16	1.3%	15.3%
9 아일랜드	16	16	14	1.2%	▼ 9.5%
10 일본	11	13	14	1.1%	22.9%
상위 10개국 합계	1,025	1,101	1,130	93.4%	10.3%
세계 합계	1,094	1,177	1,209	100.0%	10.6%

주: 2012년 상위 10개국 기준에서 2010년부터의 변화를 기재함. HS code 2204.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1.3.2. 축산물

축산물은 품목에 따라 특정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냉장 쇠고기는 일본, 냉동 쇠고기는 미국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으로는 냉동 쇠고기 및 양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외식산업계의 식육 수요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표 14 냉장 쇠고기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일본	73	71	69	26.1%	▼ 4.7%
2	프랑스령폴리네시아	26	27	26	9.9%	▼ 0.8%
3	아랍에미리트연합	18	21	19	7.2%	7.5%
4	싱가포르	16	16	18	6.6%	11.6%
5	미국	9	11	13	4.7%	33.0%
6	대만	12	12	12	4.5%	▼ 2.9%
7	네덜란드	11	12	12	4.4%	2.1%
8	영국	12	9	10	3.9%	▼ 12.6%
9	뉴칼레도니아	7	9	10	3.8%	51.9%
10	독일	8	8	9	3.3%	5.5%
상위 10개국 합계		192	195	197	74.3%	2.6%
세계 합계		262	261	265	100.0%	1.3%

주: HS code 0201.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5 냉동 쇠고기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미국	771	824	921	49.0%	19.4%
2	중국	10	21	166	8.8%	1,626.2%
3	일본	130	120	125	6.6%	▼ 4.4%
4	대만	118	117	116	6.2%	▼ 2.1%
5	한국	168	124	113	6.0%	▼ 32.6%
6	캐나다	117	95	84	4.5%	▼ 28.1%
7	필리핀	38	41	37	2.0%	▼ 2.4%
8	인도네시아	100	89	34	1.8%	▼ 65.8%
9	홍콩	28	36	27	1.4%	▼ 5.2%
10	말레이시아	14	22	27	1.4%	88.9%
상위 10개국 합계		1,494	1,488	1,648	87.8%	10.3%
세계 합계		1,774	1,748	1,878	100.0%	5.8%

주: HS code 0202.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6 양고기(냉동·냉장)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중국	176	247	554	20.8%	214.0%
2 영국	581	534	537	20.2%	▼ 7.4%
3 독일	273	275	237	8.9%	▼ 13.1%
4 미국	311	255	211	7.9%	▼ 32.1%
5 네덜란드	137	161	135	5.1%	▼ 1.9%
6 프랑스	226	159	121	4.5%	▼ 46.6%
7 사우디아라비아	92	84	91	3.4%	▼ 1.1%
8 캐나다	112	102	86	3.2%	▼ 23.1%
9 벨기에	195	122	82	3.1%	▼ 58.1%
10 요르단	45	58	52	2.0%	16.1%
상위 10개국 합계	2,147	1,996	2,105	79.2%	▼ 1.9%
세계 합계	2,912	2,639	2,658	100.0%	▼ 8.7%

주: HS code 0204.10, 0204.21, 0204.22, 0204.23, 0204.30, 0204.41, 0204.42, 0204.43.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1.3.3. 낙농제품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수출 규모는 EU 27개국의 합계에 필적하며, 낙농이 번성한 호주나 미국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이다. 특히 약 60%를 우유 및 크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억 NZ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유제품 전체의 수출액은 약 124.9억 NZ달러(2012년도)이며, 2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의 성장을 보면,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nted Arab Emirates)의 확대가 눈에 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우유 및 크림은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의 수출액 상위국에도 중국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치즈와 카제인·카제인염을 수입하고 있다.¹⁾

1)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2012년 기준으로 치즈를 1억 3,300만 NZ달러, 카제인 및 카제인염을 3,400만 NZ달러를 수입하고 있음

표 17 낙농제품 전체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중국	2,286	2,302	2,978	23.8%	30.3%
2 미국	773	915	843	6.7%	9.0%
3 일본	542	583	565	4.5%	4.2%
4 필리핀	507	490	459	3.7%	▼ 9.5%
5 인도네시아	360	431	435	3.5%	20.7%
6 아랍에미리트연합	344	472	424	3.4%	23.4%
7 사우디아라비아	487	446	424	3.4%	▼ 12.9%
8 알제리	419	346	423	3.4%	0.8%
9 말레이시아	431	461	419	3.4%	▼ 2.7%
10 호주	539	499	399	3.2%	▼ 26.0%
상위 10개국 합계	6,689	6,945	7,369	59.0%	10.2%
세계 합계	12,308	12,732	12,490	100.0%	1.5%

주: HS code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2105, 3501, 3502. 카제인 등 포함.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표 18 우유 및 크림의 국가별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분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감률 2010→2012
1 중국	1,839	1,714	2,349	33.9%	27.8%
2 아랍에미리트연합	279	410	364	5.3%	30.5%
3 알제리	328	279	346	5.0%	5.5%
4 말레이시아	318	327	309	4.5%	▼ 3.0%
5 베네수엘라	448	533	297	4.3%	▼ 33.6%
6 인도네시아	229	287	267	3.9%	16.8%
7 필리핀	274	242	225	3.3%	▼ 17.7%
8 사우디아라비아	285	251	223	3.2%	▼ 21.8%
9 싱가포르	222	229	215	3.1%	▼ 3.2%
10 스리랑카	290	328	202	2.9%	▼ 30.2%
상위 10개국 합계	4,511	4,600	4,797	69.2%	6.3%
세계 합계	6,596	6,765	6,929	100.0%	5.0%

주: HS code 0402.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2. 농업정책

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의 규제 완화와 자유화가 강력하게 진행되어, 현재 정부에 의한 농업보조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도입된 보호주의 정책이 전후에도 확대되어, 1984년에는 농업 생산의 약 30%가 보호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하에서 비효율적인 생산과 고비용 생산이 이루어진 결과, 농업의 생산성은 저하되었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노동당이 집권하였고, 1984년에서 1997년에 걸쳐 시장의 원리를 원칙으로 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업정책에서도, 양모, 식육, 유제품의 가격지지정책의 폐지, 비료 등 농업투입보조금의 폐지 등 철저한 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를 단행하였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1988년에 대부분의 농업지지정책이 철폐되었다. 또한 식육검사, 동물건강검사, 검역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운영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요금이 부과되었다. 이 결과 1990년에 뉴질랜드 경제 내에서 농업은 가장 규제가 적은 부문이 되었다.

표 19 1984년 이후 6년간 폐지된 농업지지정책

농업지지정책		도입년	폐지년
가격지지정책	유제품위원회에 의한 가격안정조치	1938	1985
	소맥위원회	1965	1987
	식품위원회에 의한 가격안정조치 양모위원회에 의한 가격안정조치	1976	1985
	양모, 식육, 유제품의 보조적 최저가격제도		1984
직접보조	비료보조, 석탄보조		1984~1986
	농촌은행(RBFC)에 의한 저리융자		1988(주)
생산량확대지지	해수구제보조금		1984~
	가족인센티브제도		1985
	토지개발장려융자		1985
	관개보조		1988

주: 연차불명, RBFC를 민영화.

2.1. 농업생산자에 대한 정책

1984년 이후 급격한 경제개혁의 결과, 1980년대 말에는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정책은 거의 사라졌다. 경제개혁 이전에 정부가 시행하던 업무 가운데 민간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생산기술 지도에서도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 기업이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 조언, 검역, 인증 등에 한정되고 있다. 게다가 검역이나 인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수익자로부터 회수하고 있으며, 재정 보조는 전혀 없다. 2012년(2012년7월~2013년 6월)에 승인된 농림수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총 209건, 예산액은 1억 1,115만 NZ달러이다.

3. 낙농정책

3.1. 낙농개황

뉴질랜드 낙농은 방목을 중심으로 광대한 방목지에서 성장한 목초를 젖소가 섭취하고, 생유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생유는 각 유업회사로 공급되고, 유제품으로 가공되어 판매 및 수출되고 있다. 온난한 기후조건과 혜택 받은 강우라는 자연조건을 살려 풀밭을 최대한 활용한 1년 내내 방목주체의 사육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단, 풀밭의 생육 상황에 맞추어 경영되고 있으며, 계절번식 및 계절착유가 특징이다.

표 20 생유 및 유고형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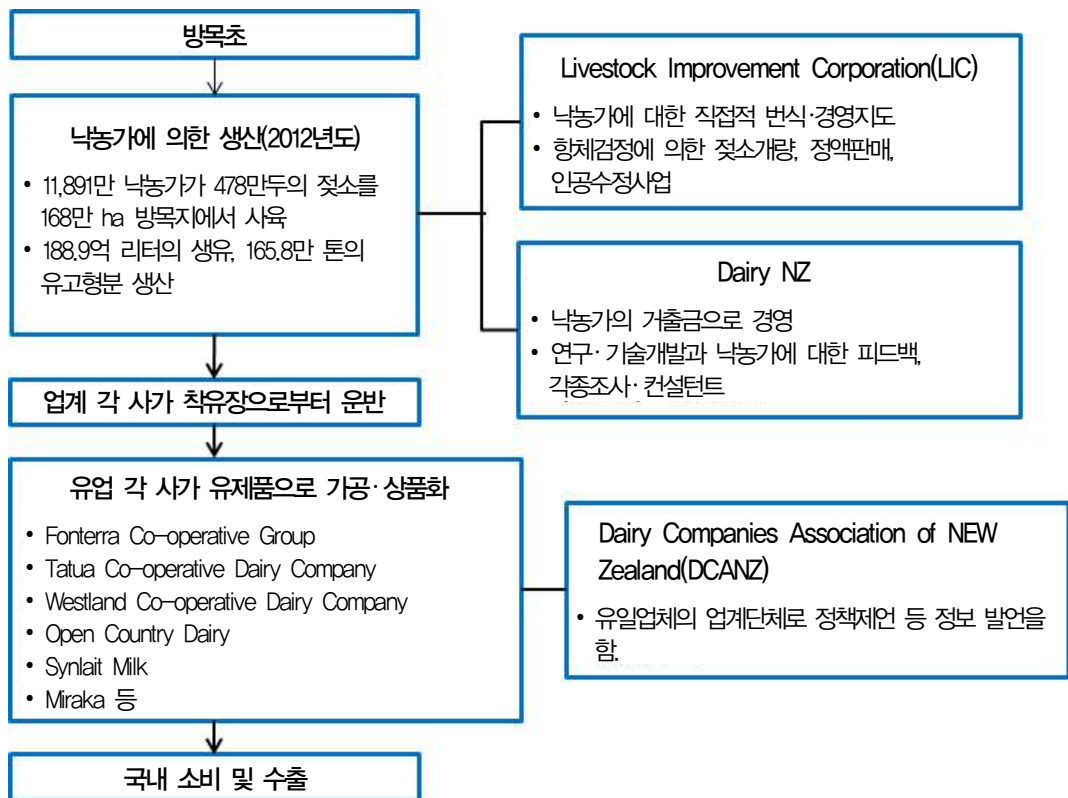
구분	생유생산량			유고형분 생산량			
	총량 (억 ℓ)	1호당(ℓ)	1두당 (ℓ)	총량 (만 톤)	1호당 (kg)	1ha당 (kg)	1두당 (kg)
1995	93.3	663,248	-	78.8	55,877	705	283
2000	129.3	930,047	-	109.6	78,914	825	210
2005	147.0	1,237,228	3,763	126.7	106,660	907	325
2010	173.4	1,477,531	3,829	151.3	128,946	923	334
2011	191.3	1,621,344	4,128	168.5	142,811	1,028	364
2012	188.8	1,587,980	3,947	165.8	139,410	988	346

주: 유고형분은 유지방분+유단백분. 연도는 6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LIC, 2013, Dairy NZ, New Zealand Dairy Statistics 2012-2013.

표 21 뉴질랜드 낙농의 주요 특징

<p>① 방목을 주체로 한 초지낙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목에 의해 사료작물 조달·사료주기 분뇨의 처리 등에 관계된 노동이 절감되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기계도 불필요함. 낙농가가 필요한 것은 착유시설만으로 외양간이나 트랙터조차 가지지 않는 경향이 통상적임.
<p>② 저비용으로 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계절착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음용시장(우유시장)이 작고, 생유생산량의 95%를 보존성이 있는 유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음. 1년 내내 착유할 필요가 없어, 목초의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착유기를 설정하고 있음. 대략 8월에서 5월까지의 10개월간 정도는 착유를 하지만, 나머지 2개월간은 건유라고 하여 유제품 공장도 조업을 중단함. 번식도 분만도 1년의 한 시기만 집중하고 있음.
<p>③ 공공적 농업보조금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는 국내 산업의 보호정책·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재정적자와 대외채무의 심각화로 인하여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철저한 행정재정개혁을 실시하였음. 농업분야의 보조금제도 폐지 등이 행해짐

그림 8 목초에서 유제품 제조·판매에 이르는 유통흐름과 관계 주체



주: '2012년도'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냄.
 자료: LIC, 2013, Dairy NZ, New Zealand Dairy Statistics 2012-2013.

낙농가지원 조직에는 번식지도와 젖소의 품종개량 등을 하는 'Livestock Improvement Corporation(LIC)', 낙농경영의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Dairy NZ'가 있다. 또한 낙농업체의 업계단체인 '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 DCANZ'에서는 낙농업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낙농가의 수는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최근 제동이 걸리면서 농가 1호당 생산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면적 및 사육두수는 모두 확대 경향에 있다. 그 배경으로는 농가의 고령화와 은퇴에 따라 인접한 낙농가와 농장의 통합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1.1. 생산

뉴질랜드 국내 음용 소비는 적고, 낙농가로부터 공급되는 생유의 약 98%는 가공용 원료로서 전지분유나 탈지분유 등으로 가공된다. 또한 유제품의 80~90%를 수출할 수 있다. 유제품의 제조는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해외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22 뉴질랜드 국내 생유공급량 및 사용량

단위: 천 톤

구 분		2011	2012	2013
공급량		18,967	20,349	20,401
사용량	국내음용용	300	300	300
	공급량에 대한 비율	1.6%	1.5%	1.5%
	가공원료용	18,494	19,899	19,931
	공급량에 대한 비율	97.5%	97.8%	97.7%

주: 공급량은 기초재고와 수입분도 포함. 일부는 수출 등이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내 음용 및 가공원료로서의 사용량을 합계로 하여도 생유공급량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USDA, 2013,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표 23 주요 유제품 관련 제품공급량 및 수출량(2013)

단위: 천 톤

구 분	공급량	수출량	수출비율
전지분유(MMP)	1,424	1,295	90.9%
탈지분유(SMP)	446	390	87.4%
치즈	347	285	82.1%

주: 공급량은 기초재고와 수입분도 포함.

자료: USDA, 2013,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3.05.15).

3.1.2. 수출

뉴질랜드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산된 유제품의 대부분은 수출한다. 유제품 수출액은 2008년에서 2012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약 1.4배 확대되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으로의 수출은 5.8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출 확대를 전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8년 전체에서 5.1%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2년에는 2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뉴질랜드로부터 유제품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NZ달러

구 분	2008	구성비	2009	2010	2011	2012	구성비	증가율 (2011→2012)
중국	374	5.1%	667	1,388	1,789	2,176	21.4%	21.7%
미국	706	9.6%	542	515	673	749	7.3%	11.2%
일본	487	6.6%	315	405	469	465	4.6%	▼1.0%
사우디아라비아	371	5.0%	191	287	390	386	3.8%	▼0.9%
이집트·마리타연합	90	1.2%	150	197	324	374	3.7%	15.6%
말레이시아	371	5.0%	223	286	366	369	3.6%	0.7%
베네수엘라	467	6.3%	225	335	378	367	3.6%	▼2.9%
필리핀	386	5.2%	261	389	414	364	3.6%	▼12.2%
인도네시아	338	4.6%	239	265	315	353	3.5%	12.0%
호주	367	5.0%	259	397	426	349	3.4%	▼18.2%
기타	3,415	46.3%	2,655	3,682	4,656	4,241	41.6%	▼8.9%
세계 합계	7,370	100.0%	5,727	8,146	10,201	10,193	100.0%	▼0.1%

주: 2012년 시점에서 국가별 상위 10개국을 기재함.

자료: USDA, 2013.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3.05.15).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은 전지분유(WMP), 탈지분유(SMP), 버터·유지, 치즈 등 4개 품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수출하는 국가 중 상위 5개국(2011년 수출액 기준)의 품목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유지의 수출량이 많은 편이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으로는 치즈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총액을 총량으로 나눈 단가는 중국용 수출보다 미국이나 일본 쪽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되는 품목별 수출 상황(2011 수출상위 5개국)

품목	중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세계 합계
수출총량(톤)	467,811	104,325	94,603	98,895	132,525	2,499,341
생유	18,747	0	0	8,204	38,454	123,280
탈지분유(SMP)	77,474	513	5,021	5,395	33,712	361,625
전지분유(WMP)	302,261	2,399	1	11,660	27,661	1,109,636
소비자용상품	2,451	33	3,791	2,983	8,826	45,573
유단백농축물(MPC)	1,785	46,353	2,631	1,381	1,290	77,953
버터, 유지	34,451	18,931	5,246	16,946	11,303	413,490
치즈	13,535	1,875	61,174	46,472	10,186	252,839
카제인	6,336	29,456	8,472	990	905	65,656
유장	10,510	4,628	4,498	2,758	188	29,995
기타(젓당 포함)	261	137	3,769	2,106	0	19,294
수출총액 (천 US달러)	1,788,886	673,265	469,192	426,393	414,122	10,200,398
단가(1톤당)	3,824	6,454	4,960	4,312	3,125	4,081

주: 전액 미국달러

자료: USDA, 2012,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GAIN Report,2012.05.03).

3.2. 낙농업 정책

3.2.1. 낙농산업재편법

2001년 뉴질랜드 데어리 보드(New Zealand Dairy Board), 뉴질랜드 데어리 그룹(New Zealand Dairy Group), 키위 데어리(Kiwi Co-operative Dairies)를 합병하여 폰테라(Fonterra Cooperative Group)²⁾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로 “낙농산업재편법 (Dairy Industry Restructuring Act, DIRA 2001)”이 제정되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합병에 의해 폰테라사가 국내 생유생산량의 95% 초과하여 점유하여 독점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사를 1986 통상법(Commerce Act 1986)이 규정하고 있는 상업위원회의 자세한 조사(精査,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하였다.

2) '폰테라'는 뉴질랜드 1만 500여 낙농가들이 주식을 보유한 협동조합으로 뉴질랜드 낙농가의 95%가 폰테라 소속임. 이곳 매출액은 NZ달러로 무려 176억NZD(한화 약 15조원)로 95%가 수출되는 만큼 뉴질랜드 수출산업에도 일익을 하고 있음.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25%나 차지함. 농가당 평균 농장 규모는 140ha, 농가당 평균 젖소 두수는 480두, 목장당 연간 평균 생산량은 158만 798ℓ임. '폰테라'가 2013년 점유한 원유량은 무려 180억 리터(1,854만 톤). 이 원유의 95% 이상이 전지분유, 치즈, 버터, 단백질 등의 유제품으로 가공돼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으로 수출되었음. 전 세계 100여개의 국가에 지사 및 공장 등 사업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물량도 30억 리터 즉 309만 톤에 달함.

낙농산업재편법은 낙농가와 소비자의 보호나 신규 유업회사의 시장참여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낙농가는 폰테라사에 가입 및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기존 농가주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것, 폰테라사는 집유량의 5%를 상한으로 독립계 유업회사에 대하여 합의 가격 혹은 규정 가격으로 공급해야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으로 오픈 컨트리 데어리(Open Country Dairy), 신레이(Synlait), 뉴질랜드 데어리스(New Zealand Dairies), 미라카(Miraka) 등 4개사가 신규 참여하였다. 그 후, 폰테라사의 집유 점유율은 계속 저하되어 2012/13년도에는 88%가 되었다. 나머지 12%를 다츠아(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웨스트랜드(Westland Co-operative Dairy Company) 및 신규 참여 4개사 등 총 6개사가 차지하였다.

동법의 경쟁촉진 규정은 시한적 조치이며, 생유에 관한 낙농산업규제에 관한 재검토와 낙농산업재편법의 종료 시기에 관한 협의가 2007년에 시행되었다. 정부는 동법의 경쟁촉진 규정의 연장을 결정하였고, 종료 시기를 북섬의 폰테라사의 점유율이 80%로, 웨스트랜드를 제외한 남섬의 폰테라사의 점유율이 80%가 될 때까지로 재설정하였다.

3.2.2. 낙농산업재편법의 개정

2012년 7월, 낙농산업재편법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폰테라사의 유가 설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가 설정 관련 정보의 공개, 상업위원회³⁾에 의한 유가 감시, 감독 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또 하나는 폰테라 주식의 낙농가간 매매나 뉴질랜드 주식시장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폰테라 주주시장(Trading Among Farmers 시장, TAF)과 폰테라 주주기금이 창설되었다. 그전까지 폰테라주(株)는 낙농가가 생유 출하량에 따라서 보유하고, 매년 12~2월에 걸쳐 다음 시즌 출하량의 증감 등에 따라 폰테라사에서 직접 거래로 추가구매나 재매입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구조 하에서 낙농가는 보유한 폰테라주를 TAF시장에서 매각하거나, 폰테라 주주기금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폰테라 주주기금에 매각된 주식은 뉴질랜드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각된다. 구입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권(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

3.2.3. 관개가속기금(Irrigation Acceleration Fund, IAF)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확보를 위하여 사육밀도 증가에 따른 분뇨처리와 사료사용에 따른 물 오염 등 환경문제 발생에 대처하도록 하는 대규모 관개정비 관련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5개년 정책으로, 3,500만 NZ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보조 대상은 농촌지역의 대규모 물 기반시설 정비, 전략적 수리용·관리 기술 연구, 공동체 수준의 관개 계획 작성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3개로 보조율의 상한은 50%이다.

3.2.4. 농업유지기금(Sustainable Farming Fund, SFF)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관리자가 업계 단체 및 연구자, 컨설턴트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2013년 지원 프로젝트 중 낙농업과 관련된 것에는 ‘뉴질랜드 낙농업에서 여성 리더십 능력 구축’, ‘북 캔터베리지방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3.2.5. 1차 산업성장파트너십(Primary Growth Partnership, PGP)

비즈니스 주도 및 시장주도형 1차 산업 기술혁신을 위하여 장기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활동 자금을 서로 내놓는 기술 혁신 프로그램이다. 1차 산업의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1차 산업부는 2025년까지 수출액을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낙농업 부문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낙농업 가치사슬 변혁(Transforming the Dairy Value Chain)’이 있다. 데어리 뉴질랜드(Dairy NZ)와 폰테라가 주도하고 있으며 낙농가에 의한 생산 단계(Pre-farm gate), 유업 업체에 의한 생산 단계(Post-farm gate) 등 2개의 하부 프로그램(sub program)으로 나누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농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 낙농업계와 연구기관의 산학연계 촉진, 푸드 사이언스의 연구 체제 구축 등 3개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장기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유지, 신제품·신규 시장 창출에 의한 수출 확대·경제성장, 국제적인 평가의 향상 등이다.

표 26 낙농업 가치사슬 변혁 프로그램

<p>o 변혁을 위한 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촉진 · 산업계와 연구기관과의 산학연계 촉진 · 푸드 사이언스의 연구 체제 구축 <p>o Output (2010~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인 연구 개발 과제(National Breeding Objective, NBO)로서 유전자연구 설정 · 영양학과 동물복지, 농장경영 등에 관한 산업계 독자의 평가인증시스템 정비 · 낙농업 관계자간 네트워크와 각종정보, 기술 습득 기회에 대한 접근 향상 · 생산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 · 우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생산방법 개발 · 제품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 및 건강면에서의 과학적 근거 명확화 <p>o 단기적 결과(1차 산업 성장 파트너십 관계자 파급 성과) (2012~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유전적 개량(genetic gain)의 성과 향상 · 낙농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과 조언 체제의 기반 확충 · 취농에 대한 흥미·관심 조성 · 유제품 가공의 효율화(신속화, 비용 삭감, 폐기물 삭감) · 마켓 지향의 신제품·원재료 창출 ↓ · 젖소의 유량증대와 환경적응력(resilience) 향상 · 낙농가에 대한 경험이나 신기술의 도입 · 요구에 따른 공급 능력의 획득 · 생유 생산량의 증대와 유제품의 품질향상 <p>o 중기적 결과(낙농·유업 전체적 파급 성과) (2015~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 지식과 기술 향상 · 지속가능하면서 안정적인 자원이용 · 유제품의 양적 확대·질적 향상 ·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대 ↓ · 낙농·유업 부문의 대폭적인 성과 향상 · 수익성과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 증대 ↓ · 낙농·유업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최대화와 생산 활동에 의한 환경부하의 최소화 양립 <p>o 장기적 결과(뉴질랜드 전체적 파급 성과) (2020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유업에 있어서의 자원의 가치 최대화 ↓ ·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뉴질랜드 낙농·유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 신제품·신규 시장의 창출에 의한 수출 및 경제성장의 확대 (2025년까지 매년 GDP를 27억 NZ달러 증가) · 뉴질랜드 낙농·유업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향상

자료: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http://www.mpi.govt.nz/>).

4. 시사점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외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이한 뉴질랜드는 1980년대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과감한 개혁이 실시되었다.

1984년부터 단행된 농업부문의 개혁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농업보조금 철폐와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국의 농업 종사자들을 감소시키고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농업인은 약 1% 미만의 감소가 있었을 뿐이었으며, 자립심을 키우고 서로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뉴질랜드 사례는 농업부분도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적 상황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기간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FTA를 통한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시장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연한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New Zealand Winegrowers. 2013. *Annual Report 2013*. New Zealand Winegrowers.
- LIC. 2012. Dairy NZ. 2012. *New Zealand Dairy Statistics 2011-2012*. LIC.
- LIC. 2013. Dairy NZ. *New Zealand Dairy Statistics 2012-2013*. LIC.
- Statistics New Zealand. 2013. *2013 Census*. Statistics New Zealand.
- Statistics New Zealand. 2012.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2012*. Statistics New Zealand.
- Statistics New Zealand. 2011. *National Accounts: Year ended March 2011 - GDP breakdown tables*. Statistics New Zealand.
- Statistics New Zealand. 2012. *Global New Zealand 2012*. Statistics New Zealand.
- Statistics New Zealand. 2013. *Global New Zealand (Year ended June 2013)*. Statistics New Zealand.
- Statistics New Zealand. 2012. *Global New Zealand 2012*. Statistics New Zealand.
- The New Zealand Institute for Plant & Food Research Limited. 2013. *Fresh Facts New Zealand Horticulture*. The New Zealand Institute for Plant & Food Research Limited.
- USDA. 2012.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2.05.03. USDA.
- USDA. 2013. *New Zealand Dairy and Products Semi-annual*. GAIN Report, 2013.05.15. USDA.

참고사이트

-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http://www.mpi.govt.nz/>)
- 日本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nzl.html)